

시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후안무치한 망동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고 한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회사의 소유였고 지난 세계 일제가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위한 전시물자확보를 위해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노예로동을 강요했던 피눈물과 죽음의 고역장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근대시기 일본최고의 금광이었고 지금은 관광지라는 점만 부각시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하려고 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세력은 등록신청을 빨리 강행해야 한다고

현 일본당국을 부추기고 일본의 국우세력들은 자국주민들이 사도광산의 등록신청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뿜으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섬나라의 파렴치성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섬나라족속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 강제징용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죄악에 대해 전면부정하다 못해 미화분식하고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 채찍책동에 광분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조선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도광산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마소의 반쯤로 저락시킨 인륜유린, 인륜말살범죄, 저들의 침략야망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이친 반인륜적죄악을 《관광》의 너울로 감싸고 《인류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섬나라들의 망동은 인류를 상대로 감행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죄악의 실제인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왜나라족속들의 행위는 저들의 치명리는 과거의 죄악을 미화하고 나아가서 전범국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제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다.

죄악의 발자취를 외국의 공매이로 력사의 폐지에서 가리우고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사무라이후예들의 음흉한 기도는 조선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저주하고 단죄배격해야 할 또 하나의 반인륜적죄악이다. 우리 민족과 인류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대죄악과 오늘 또 다시 저지르고있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사도광산



사도광산 갱내부

《서른여덟, 사업에서 실패한 7세가 거리로 나와 장사를 시작해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왜 다른 직업이 아니라 로점상이 되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양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 15시간을 일하지만 일주일이나 보름씩 간병을 위해 병원에 머무르기도 한다. (어느 회사가 하루 15시간씩 특근을 시켜주고 부모님 아프다고 보름씩 쉴수 있게 해주냐)로점상이죠. 웃으며 던지는 말에서 그가 감당하는 일상의 무게를 짐작할수 있었다.

2021년 가을과 겨울, 전국의 로점상 100명가량을 만났다. (COVID-19)대유행시기 로점상의 소득감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만남을 시작했는데 인터뷰를 하다보니 각자 로점을 시작한 이유에 눈길이 갔다. 사업실패와 실적이 대개 첫번째 이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두번째에 있었다. 돌봄 가족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경력이 없어서, 자신의 기술은 이제 세상에 쓸모없어서 같은것이 두번째 이유를 채우고있었다. TV기술자부터 양복을 만들던 사람까지 직장을 잃고 로점상이 됐고 경력없는 가장이 돼야 했던 여성들과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로점상이 됐다.

로점상은 세상의 실업, 빈곤과 관련이 깊다. 더불어 본인이나 가족돌봄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혹독한 노동환경이 로점상이라는 좁은 길을 연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잘 고려되지 않는다. 왜 로점상으로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고 어렸든 불법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만 나올 때 로점상들은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렸다.

로점상철거를 위해 구청이 세금으로 (철거용역)이라는 폭력을 사는것이냐 이 폭력을 승인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보건대 차별의 근거가 되는 편견은 이미 확고히 관철된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9 292개였던 로점상은 2020년 6 079개로 34% 줄었다. 열심히 쫓아낸 결과이기도 하고 장사가 안돼 스스로 문을 닫은 결과이기도 하다. 100명의 로점상을 만나고난 뒤 이 수자가 슬퍼졌다. 서울시가 성과로 보는 이 수자는 누군가의 비빌 언덕, 삶의 터전이 사라진 자리다.

최근 로점상들은 로점을 불법으로만 명명하지 말고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법망을 만들것을 청원하고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서 로점상만 잡도리해서 만들어지는 깨끗한 거리는 진실을 가릴뿐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로점상조차 될수 없을 때 누군가의 생존이 당한다는 사실이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면 도시와 함께 로점상이 살 방법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한겨레 21》 2022년 1월 24일호에서 전재)

니와 같은 부동산정책으로 내 집마련의 꿈이 수포로 된 5년》이라고 비난하고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당국의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놀음을 벌이면서 《정권심판》의 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국과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고있다고 한다.

현제 민주당은 현 당국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정

책실패에 대해 무릎까지 꿇고 사죄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부동산부에 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6월 지방자치선거에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당혁신안》이라는것도 발표하였다고 한다.

현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치는 새해에 들어와서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

《로점상은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렸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이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 더해 사고이후 《정부》의 대처는 더욱 분노를 유발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선호씨 사고직후 상급기관에 《바람에 철제집합추면이 걸렸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보고했냐고 물으니 회사관계자가 말해주길 그대로 보고했다고 하더라.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면서 리재훈씨는 《이 사회의 공무원은 이렇다.》며 격분했다.

심지어 해수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선호씨 사고이후에

《방역실태관련조치리행사항 점검》을 위해 평택항을 찾았으나 선호씨사고에 대해 알지도 못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전해졌다.

리재훈씨는 《보고를 안받은건지, 받고도 말을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여 한다는 말이 《관리가 잘되고있다. 관계자라고에 감사드립니다.》라니 말이 되나. 밀의 늪이나 우의 늪이나 다 똑같다. 사람이 죽은 곳을 찾아가서 무슨 말장난인가.》라고 비난했다. 선호씨의 사고에서 나라는 보이지 않았다.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김정혁

본사기자

본사기자

속이 검은자일수록 비단두루마기를 걸친다는 말이 있다.

은갖 부동산패의혹을 산같이 가지고있으면서도 《공정》과 《상식》을 제일 요란스레 떠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그의 《국회》의원선거의혹사건과 처가족속들의 부동산패 등 각종 부동산패의혹들이 넘쳐나고있다. 구마처럼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윤석열이 과거 검사노릇을 하면서 한 건설업체로부터 대장동계발투회의혹사건에도 깊이 연루된 사실이 언론들에 의해 또다시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 1월 29일 남조선

회적론난을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겨레》,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에 의하면 윤석열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설과 추석 등 민속명절때마다 건설업체 삼부토건그룹 회장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농산물과 고기 등을 《선물》로 받아먹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에는 골프와 식사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 2005년 과주시 윤정지구개발을 둘러싼 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윤석열은 삼부토건그룹의 부정부패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에서 배제시키는것으로 덮어주었다고 언론들은 폭로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당시 과주시 윤정지구개발과 관련한 부동산투기에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그룹이 동업관계에 있었지만 검찰은 《형사사건은 실제행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한다.》며 삼부토건그룹을 배제하고 SM종합건설의 대표만을 처벌하였다고 까밝혔다.

한편 윤석열이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대장동계발투회의혹사건에도 깊이 연루된 사실이 언론들에 의해 또다시 드러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권력야망에 열이 오른 여야정객들은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정쟁에만 몰두하고있다.

소생활을 모르는 민생고는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 없이 저희들이 권력을 잡으면 마치도 무엇을 할것처럼 생생하게 무얼 증명하는 사이버정객들때문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전례 없는 《사과풍년》

이나 유권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고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와 그의 처도 수차례나 고개를 숙이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정치인들의 사과가 회수, 대상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대폭 늘어난 리유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자체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남조선 각계와 언론들이 평하는바와 같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도 보면 본인의 경력에서 문제가 많은것은 물론 자식문제, 처문제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어 유권자들의 불만과 비난을 사

고있다. 남조선에서 주요 부동산패사건으로 거론되는 대장동계발투회의혹사건만 보더라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깊이 얽혀져있는것으로 하여 매일같이 여론이 시끌벅적하다.

본인들도 문제인데 거기에 더 치라는 사람들까지 신통히 갖은 문제거리들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항간에서 《력대 최대의 비호감선거》라는 비난까지 울려나오고있는 판이다.

이렇게 인물들자체가 의혹투성이고 말썽거리로 되고있으니 그들의 속이 뻔히 드러나보이는 《사과》놀음에 누구도 박수를 쳐주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좀 다시 봐달라고 사정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거짓눈물까지 짜내며 애걸복걸하고있는것이다.

여야당후보들이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지만 오직 일신의 향락과 영달을 위한 야욕, 어떻게 하나 민심을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보려는 야망이 허구된 정치민화를 연출하게 한것이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평이다.

남조선에서의 전례없는 《사과풍년》, 이것은 굶을대로 굶은 남조선정계의 어두운 리면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신문들에 게재된 풍자만화

지난 1월 27일 남조선신문들이 또다시 《대북선제타격》을 운운한 《국민의



만화는 얼마전 《의교안보 정책공약》의 하나로 《대북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윤석열을 전쟁미끼공약인 히틀러에 비겨 풍자하면서 《전쟁광 윤석열》가 군부무력도 없으면서 《전쟁》을 부르짖으며 분별없이 날뛰는데 대해 신랄히 조소하였다.

신문들은 구태의연한 《색갈론》인 《선제타격》발언을 계속하면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쫓고있는 윤석열에게는 국민들의 안전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한 해설글을 덧붙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